



◆어르신들 일하고 싶으세요?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일거리사업장, 노인취업훈련센터, 고령자직업알선센터 등 다양한 단체와 복지관을 이용해 노인재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관 | 프로그램 | 전화번호 |
|-------------|-----------------------|-----------------|
| 서울노인복지센터 | 중요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훈련센터 | (02)3210-0237~8 |
|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02)385-1351 |
| 서울성북노인복지관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02)929-7950 |
| 서울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취업지원센터 | (02)466-6242 |
| 고양일산노인종합복지관 | 취업훈련센터 | (031)919-8677 |
| 수원시호노인복지관 | 취업훈련센터 | (031)291-0911 |
| 대전시니어클럽 | 노인취업알선센터, 유기농산물재배 | (042)471-5545 |
| 전주서원노인종합복지관 | 시니어클럽, 노인일거리마련사업센터 | (063)227-7483 |
| 울산남구노인복지회관 | 노인일거리사업 | (052)265-5221 |
| 여주시노인복지관 | 노인일거리사업 | (061)685-2381 |
| 여주시니어클럽 | 천생연분 떡방, 먹거리사업단 | (061)692-4555 |
| 경주시니어클럽 | 문화유산해설사, 숭례태해설사 양성 | (054)775-1950 |
| 의성노인복지회관 | 노인일거리사업 | (054)833-6006 |
| 대구남구시니어클럽 | 햇빛촌 떡방, 행복한 나눔기계 | (053)471-8090 |
| 부산서구시니어클럽 | 도솔산 떡방 | (051)244-6700 |
| 부산금정시니어클럽 | 노인일거리사업 | (051)516-3045 |

“일하고 용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노인일거리마련센터 현장

“집에 있으면 누워있기만 합니다. 여기 와서 행님, 아우님들 만나 이야기도 하고, 용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 아니면, 이 나이에 오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나?”

7월 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덕림)이 운영하는 ‘서원노인일거리마련센터’. 이날 나온 50여 어르신들이 모여 작업하는 공동작업장은 웃음과 말소리로 시끌벅적했다. 60대 후반 할아버지부터 백발 성성한 80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 어르신들이 불행 조립에 여념이 없다. 모두들 어엿한 일거리가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관장 덕림 스님이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말을 건네도 어르신들은 “웬걸, 일하다 보면 아픈지 몰라”라며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인다. “평소에는 일하면서 노래도 부르는데, 오늘은 바깥에서 손님(기자들)이 오셨으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야지”라는 말에 여기저기서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노인일거리사업이란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층에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돈 뿐만 아니라, 노년생활의 활력을 위해 센터를 찾는다.

친구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정보도 얻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작업을 위해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 치매 예방도 되고, 마음과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전직 교장선생님이었던 박정옥(70) 할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70세 나이에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며 “일을 하며 자신감을 찾자 자식들이 더 좋아 한다”고 활짝 웃었다.

간단하고 단조로운 일이지만,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 불행은 우리가 조립해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거여. 영국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팔린다지.” 박부레(74) 할머니는 조립하고 있던 불행의 영어라벨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속편되면 하루 200개도 조립한다”고 말한다.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정확히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누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이 진행되지만 어르신들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복지관이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거리사업에 비해 이곳 센터 참여 어르신들은 나이의 폭도 다양하다. 최고령자는 93세 어르신으로, 평균 70대인 젊은사람(?)들 못지 않게 왕성한 작업을 하고 있다. 서원노인복지관 김천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노인일거리사업은 정년퇴직하지 얼마 안 된 50~60대의 고학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곳 일거리마련센터는 그 보다 훨씬 높은 연령대의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은 전주시에서 위치한 회사들의 일거리를 주문 받아

제작하고 개인당 한 달에 30~4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그 중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숙련된 솜씨로 일거리를 처리해 90여 만 원을 버는 고소득자(?)도 있다. 수백 만원을 버는 도시 근로자에게는 용돈에 불과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용돈이 아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알짜배기 돈이다. 벌써 5년 동안 센터에서 일한 김양진(81) 할머니는 “담배도 사고, 아플 땐 약도 사 먹을 수 있다”며 “일만 있다면 언제까지라도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곳의 전체 수입을 합치면 연간 1억원이 넘는다. 관계자들은 올해 1억6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에서 7개의 노인일거리사업장이 있지만 대부분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선에서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곳보다 세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비결이 무엇일까. 센터 이석강 팀장은 “지역적 특성을 살리

60~80대 어르신 모여 공동작업 지역 산업 특성 살려 일거리 육성 올해 수입 1억 6천만원 예상 2001년 시작... 매일 9시출근 6시퇴근

면서도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중점육성한 덕분”이라고 요약한다. 즉, 어르신 일거리의 ‘블루오션’에 과감히 뛰어든 덕분이다.

물론 처음부터 잘됐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일거리를 어르신들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회사도 부지기수였고, ‘노인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지역주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복지관 직원들이 발로 뛰며 ‘노인일거리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이제는 그 진가를 알아보고 서로 일을 맡기려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에 숙련된 어르신 기술자를 양성하고, 철저한 재고관리, 품질관리, 납품기간이행,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사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특히 유명한 사업은 상자제작이다. 어르신들은 “전국에서 유통되는 메리야스 상자 2개 중 하나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한 달에 1백30만 장, 일 년에 1천5백만 장의 상자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섬유와 종이제조 등 경공업이 발달한 전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곳의 메리야스 상자 수요는 매우 높는데 이를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하면서 지역적 요구와 맞아떨어진 덕택이다.

올해 시작한 불교용품사업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8월 백중을 앞두고 벌써 예수채 용품 6만 개를 전주 주문 받았다.

서원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96명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노인일거리마련센터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 건강용품 제작하고, 패백음식 등을 판매하는 서원시니어클럽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전주/글=이은비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숙련된 솜씨로 상자를 접는 어르신들. 전국의 메리야스 상자 50%는 이곳 어르신들 손끝에서 탄생한다.



“불행 조립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납품할 옷을 한뼘 한뼘 정성들여 확인하고 있다.



관장 덕림 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은 노인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으로 지역노인을 위한 일거리사업을 이끌고 있다.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에게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납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과년도 한정판매!!

-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하권) : 70,000원
-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